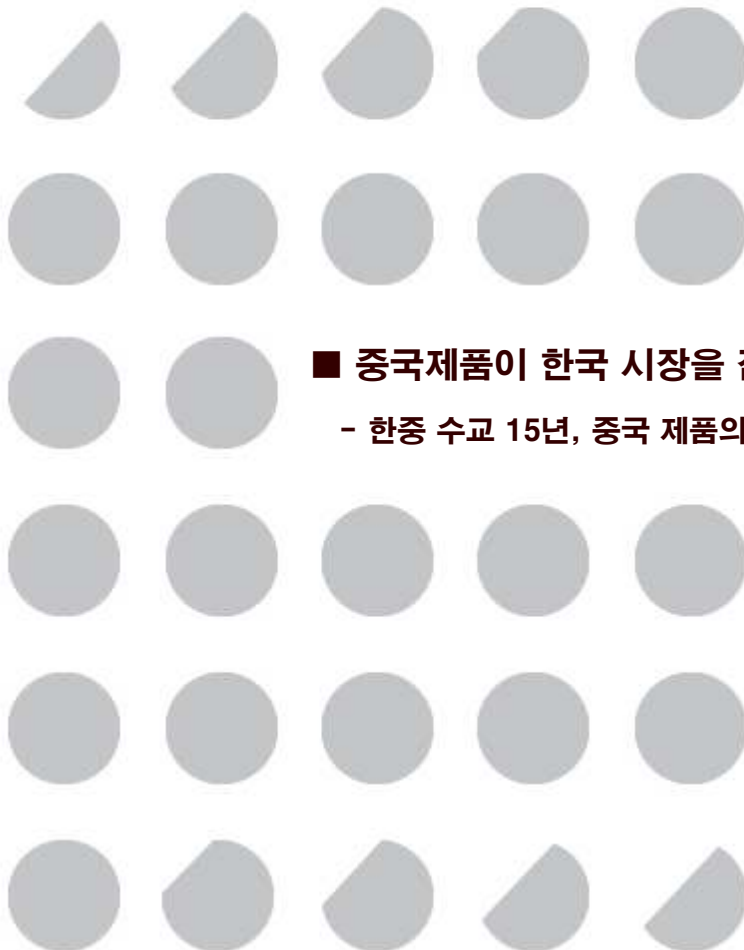




07-32 (통권 263호)

2007.8.24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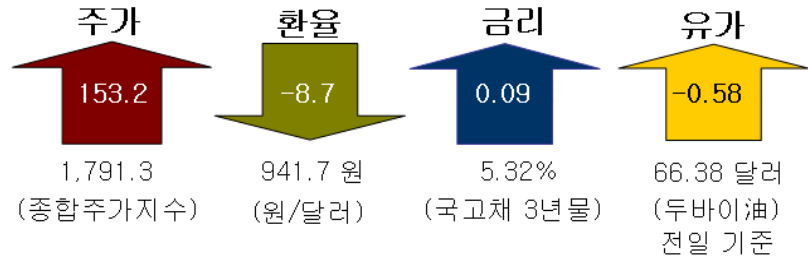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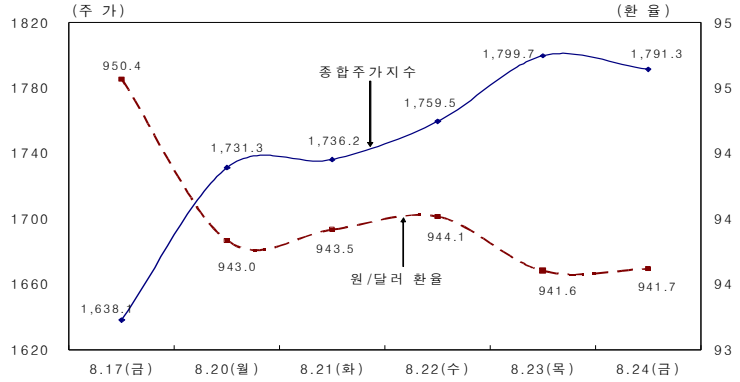


■ 중국제품이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 한중 수교 15년, 중국 제품의 한국 시장 침투 현황과 과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17~8.2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국제품이 한국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1
월간 경제 동향	25
□ 실물 부문 : 2/4분기 교역조건 악화	25
□ 금융 부문 : 주가 급등 속, 원화 환율 하락	2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ybk@hri.co.kr)
 □ 지식산업실 : 임 상 수 연구 위원 (3669-4125, happylims@hri.co.kr)
 □ : 이 부 형 연구 위원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 중국제품이 한국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 한중 수교 15년, 중국 제품의 한국 시장 침투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對中 교역 추이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제품 對韓 침투도 급증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의 수출 상대국 1위, 수입 상대국 2위에 오르는 등 양국간 교역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對中 수출 규모는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에 비해 2006년 현재 약 26배가 성장했다. 그 결과 중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수출 상대국 1위 국가를 지키고 있다. 한국의 對中 수입액은 1992년에 비해 2006년 약 13배가 성장했으며,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수입대상 중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수교로 양국간 교역 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제품의 한국시장 침투도 역시 급증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 중국 제품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4.6%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11.4% 그리고 2006년에는 15.7%로 1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는 한중 교역 확대 과정에서 한국의 對中 수출 경쟁력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중국의 對韓 시장 침투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한국의 對中 시장 침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對中 무역특화지수는 한중 수교 이후인 1993년(0.13)부터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바뀌었으며, 1998년(0.3)까지 급상승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0.21)부터 2002년(0.15)까지 무역특화지수는 하락하였으며, 2003년(0.23)과 2004년(0.25)에는 증가했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 각각 0.23과 0.18로 특화지수가 감소하고 있어,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2. 중국 제품별 한국시장 침투의 특징

(분석방법)

중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침투율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수입 시장(이하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다양한 측면에서 산출해 보았다. 먼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재의 제품 성질별 구분과 1차 산업, 경공업 제품, 중화학공업 제

품의 산업별 구분을 통해 산업 차원에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한 후, MTI 2단위 코드를 바탕으로 2006년도 품목별 對中 수입 비중을 산출하여 30대 품목을 선정하고 이의 침투도를 분석하였다.

(제품 성질별)

특징 1. 외환위기 이후 중국 제품의 한국 시장 침투 급증

한중 수교 이후, 중국제품의 한국시장 침투도는 외환위기 이전 보다 이후에 급증했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제품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년 평균 5.69%인 반면,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년 평균 11.53%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무려 5.84%나 증가했다.

특징 2. 중국산 소비재가 한국 수입 시장의 1/3 차지

한중 수교 이후 중국산 소비재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992년 9.8%에서 수교 10주년인 2002년 28.8% 그리고 2006년 35.7%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산 소비재는 한국 수입시장에서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 원인은 크게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그리고 시장 여건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징 3. 중국산 자본재의 한국 시장 침투도 가속화

중국의 對韓 수출 중 원자재 비중은 30% 후반의 일정수준을 유지하였고, 소비재는 2002년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 감소한 반면, 자본재의 비중은 1992년 3.8%에서 2006년 38.6%로 10배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산 자본재의 한국 시장 점유율 역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산 자본재가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0.45%에서 2002년 9.22% 그리고 2006년에는 18.5%로 1992년에 비해 41배가 증가했다.

(산업 유형별)

특징 4. 중국의 對韓 수출 산업의 주력 업종이 중화학공업으로 변화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 중국산 1차 상품 수입 규모는 17.2억 달러였으나, 2006년 5.8억 달러로 감소했다. 중국의 對韓 수출 중 경공업의 비중 역시 1992년도 26.2%에서 2006년 3.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對韓 수출 중 중화학공업의 규모는 1992년 10.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 342.1억 달러로 약 30배 증가하여 중국의 對韓 수출 중 95%를 기록했다. 그 결과 중국산 중화학공업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992년 1.94%에서 2006년 17.19%로 약 8배 증가했다.

특징 5. 중국 제품의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침투도 급상승

한국의 기간산업인 철강금속 제품 및 전자전기 제품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2년 중국산 철강금속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3% 였으나 2006년 26.24%로 약 6배 증가했다. 중국산 전자전기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 역시 1992년 0.92%에서 2006년 26.12%로 약 26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산 전자전기 제품의 경우 중전기, 가정용 전자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등 조립 완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을 나타냈다.

(단위 제품별)

특징 6. 중국의 철강금속제품은 한국에 대해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2006년 한국의 산업별 對中 무역특화지수는 1992년에 비해 대체로 증가했으나, 플라스틱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의 경우는 감소했다. 최근에 들어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의 對中 무역특화지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금속제품은 2005년부터 수출특화제품에서 수입특화제품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산 철강금속 중 철근, 중후판, 주철 등 철강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을 차지했다.

특징 7. 중국의 대韓 시장 침투,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산업까지 확산

중국산 철강금속의 경우, 완제품인 철강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992년 5.17%에서 2006년 31.65%로 급증했으며 이와 함께 소재 성격이 강한 비철금속 역시 1992년 2.23%에서 2006년 17.53%로 증가했다. 또한 중국산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완제품인 가정용 및 산업용 전자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992년 각각 4.44%, 0.57%에서 2006년 39.79%와 35.72%로 급증했다. 전자부품 역시 1992년 0.32%에서 2006년 16.34%로 증가했다. 이처럼 중국 제품의 한국 시장 침투는 완제품에서 부품 소재 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징 8. 중국산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 급증

최근 들어 산업별 고부가가치 제품의 중국산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산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992년 각각 4.47%에서 2006년 36.2%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 기계류 가운데 중국산 수송기계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1992년 0.20%에서 2006년 6.39%로 증가하였다. 특히 수송기계 중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1992년 13.43%에서 2006년 55.48%로 급증하였다.

3. 정책 과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첫째, 주력 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신기술 융합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융합기술 사업화 전략단'의 구성, 신기술 융합 제품의 정부 조달 강화, 신기술 융합 제품에 대한 R&D 세제의 한시적 우대 조치 도입, 신기술 융합 제품의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IT, BT, NT 등 신기술 융합 제품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초고속 여객용 선박,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형 첨단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고도화로 新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한편 지역 거점형 '제조혁신연구개발코어' (대만 타이난 과학기술공업단지에 '산학혁신연구개발시범구역'을 건설, 전통 제조업의 혁신연구개발 전환을 지원) 조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첨단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완제품에서 부품·소재까지 전방위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쟁력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소재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처 통합에 의한 종합 육성 체제 수립, 선행-응용-사업화 연계 패키지형 기술개발 프로그램 개발이나 소재정보은행과 기술지원센터 활성화 등 차별화된 소재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가칭 '소재(생산기반기술)전문펀드' 등 자금 형성을 통한 사업화 촉진 등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내 부품·소재 기업의 글로벌 조달 기업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동유럽의 지역 또는 국가들과의 FTA 등을 통해 대외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투자, 교역 등에 있어서의 對中 쏠림현상을 개선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첫째, 투자 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국 이외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아시아, 동유럽 등지에 대한 투자 지역 다변화를 통해 對中 의존도를 약화시키고, 투자 리스크의 분산 등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對中 제품 경쟁력 강화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 둘째, R&D, 디자인, 기술경영 등 기존 산업의 소프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국내 소비 수요에 맞춘 상품 개발 및 국내 마케팅 전략 강화를 통한 내수 경쟁력 확보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한중 수교 15주년, 對中 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 >

한국의 對中 교역 추이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제품 對韓 침투도 급증	- 1992년 중국제품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4.6%였으나, 2006년 15.7%로 4배 가까이 증가함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경쟁력 약화	- 한국의 對中 무역특화지수는 2003년(0.23)과 2004년(0.25) 증가하다 2005년(0.23)과 2006년(0.18)에는 감소세를 보임

중국 제품별 한국시장 침투의 특징		
제품성질별	외환위기 이후, 중국제품의 한국 시장 침투 급증	-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년 평균 5.69% -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년 평균 11.53%로 5.84% 증가
	중국산 소비재가 한국 수입 시장의 1/3 차지	- 중국산 소비재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992년 9.8%에서 2006년 35.7%를 기록
	중국산 자본재 한국 시장 침투 가속화	- 중국 對韓 수출 중 자본재의 비중은 1992년 3.8%에서 2006년 38.6%로 급증 - 중국산 자본재가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0.45%에서 2006년 18.5%로 41배 증가
산업유형별	중국의 對韓 수출 산업의 주력업종이 중화학공업으로 전환	- 중국산 중화학공업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992년 1.94%에서 2006년 17.19%로 급증
	중국 제품의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침투도 급상승	- 중국산 철강금속 제품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1992년 4.03%에서 2006년 26.24%로 6배 증가 - 중국산 전자전기제품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1992년 0.92%에서 2006년 27.12%로 26배 증가
단위제품별	중국의 철강금속제품은 한국에 대해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 철강금속제품은 2005년부터 對中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됨 (대중 무역특화지수 2004년 0.06에서 2005년, 2006년 각각 -0.05, -0.16)
	중국의 대한 시장 침투,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산업까지 확산	- 완제품인 중국산 철강제품과 가정용 및 산업용 전자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각각 1992년 5.17%, 4.44%, 0.57%에서 2006년 31.65%, 39.79%, 35.72%로 급증 - 소재 성격이 강한 비철금속과 전자부품 역시 각각 1992년 2.23%와 0.32에서 2006년 17.53%와 16.34%로 급증
	중국산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 급증	- 고부가가치 산업인 중국산 정밀화학 및 석유화학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992년 1.35%와 4.04%에서 2006년 8.25%와 14.51%로 급증 - 중국산 열연 강판 역시 1992년 4.47%에서 2006년 36.2%로 급증

정책 과제	
정부차원의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 대외 경제 협력 강화 촉진을 통한 對中 수출 현상 수정
기업차원의 대비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지역 다변화 -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 - 국내 소비수요에 맞춘 상품 개발 및 국내 마케팅 전략 강화

□ 중국 제품이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 한중 수교 15년, 중국 제품의 한국 시장 침투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對中 교역 추이

○ (한중 수교 이후, 對中 교역 규모 급증) 한국의 對中 교역 규모는 급증하였으며, 무역수지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함

- 중국은 한국의 수출 대상국 1위 : 한국의 對中 수출액은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에 비해 2006년 현재 약 26배가 성장하였으며, 한중 수교 이후인 2003년부터 한국의 수출 상대국 1위를 고수
 - 한중 수교 이후 수출 금액은 1992년 26.5억 달러, 1997년 135.7억 달러, 2002년 237.5억 달러, 그리고 2006년에는 694.6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음
- 수입 급증 : 한국의 對中 수입 규모도 1992년 대비 2006년 현재 약 13배 성장
 - 對中 수입 규모는 1992년 37.2억 달러, 1997년 101.2억 달러, 2002년 174억 달러, 그리고 2006년에는 485.6억 달러로 급증세를 지속
 - 1992년 중국은 한국의 수입 대상국 5위였으나, 2004년 이후 일본에 이어 2위
- 중국은 한국의 무역 수지흑자 1위국 : 2003년 이후 한국은 무역상대국들 가운데 對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한중 수교 이후, 對中 교역 규모 추이 >

(단위 : 천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1992	2,653,639(6)	164.70	3,724,941(5)	8.27	-1,071,302	56.06
1997	13,572,463(3)	19.30	10,116,861(3)	18.48	3,455,602(2)	21.74
2002	23,753,586(2)	30.58	17,399,779(3)	30.80	6,353,807(3)	30.00
2006	69,459,178(1)	12.18	48,556,675(2)	25.64	20,902,503(1)	-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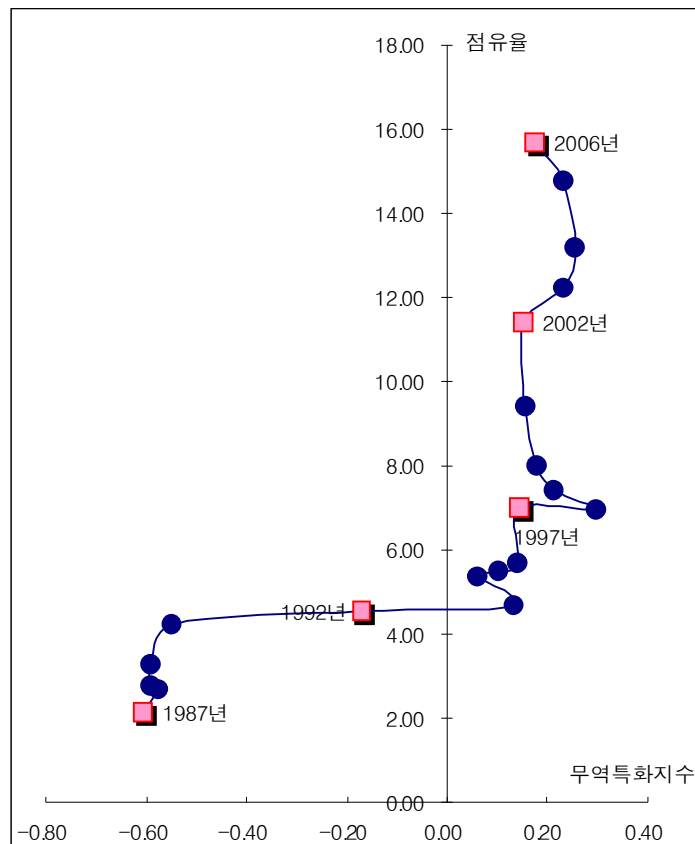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주 : 괄호는 한국의 무역 상대국들 중 중국이 차지하는 순위.

- (對中 수출 경쟁력 약화, 수입 비중 증가)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對中 수입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對中 수출 경쟁력 약화 :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對中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었으나, 2004년 이후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등 對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對中 무역특화지수가 1992년 -0.17에서 1993년 0.13으로 개선된 이후 1998년 0.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과 회복을 되풀이 하면서 2006년에는 0.18까지 하락
 - 對中 수입 비중 급증 : 한국의 전체 수입 대비 對中 수입 비중은 지난 2000년 이후 급상승, 한중 수교 10주년인 2002년에는 11.4%, 2006년에는 15.7%까지 확대

< 對中 무역특화 지수 및 중국산 시장 점유율 추이 >

년도	무역특화 지수	시장 점유율(%)
1987	-0.61	2.1
1988	-0.58	2.7
1989	-0.59	2.8
1990	-0.59	3.2
1991	-0.55	4.2
1992	-0.17	4.6
1993	0.13	4.7
1994	0.06	5.3
1995	0.11	5.5
1996	0.14	5.7
1997	0.15	7.0
1998	0.30	7.0
1999	0.21	7.4
2000	0.18	8.0
2001	0.16	9.4
2002	0.15	11.4
2003	0.23	12.3
2004	0.25	13.2
2005	0.23	14.8
2006	0.18	15.7



자료 : 무역협회.

2. 중국 제품별 한국시장 침투의 특징

○ (분석 방법) 중국 상품의 한국 시장 침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산업 차원에서 對中 수입 현황을 분석한 후, 주요 제품 침투도를 분석

- 산업 차원에서의 분석 : 제품 성질별, 산업별 분석
 - 제품 성질별 분류 : 제품 성질별 분류는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재로 구분되나, 기타재의 경우 비중이 거의 0%에 가까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별 분류 : 산업별 분류는 크게 1차 산업과 공산품으로 구분되며, 공산품은 경공업 제품과 중화학 제품으로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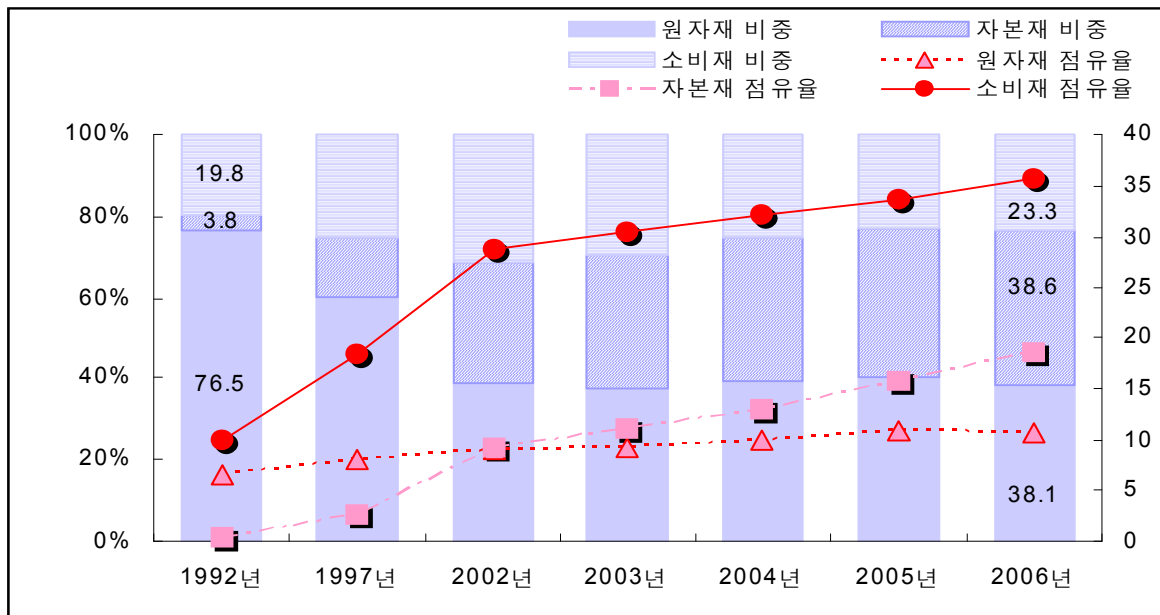
- 제품 차원에서의 분석 : 산업자원부가 분류한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한 후, MTI의 2단위 코드를 바탕으로 각 산업별 주요 중국산의 한국시장 수입 침투도를 분석함
 - MTI 기준의 산업 분류 : MTI 1단위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하면,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잡제품의 10개 산업으로 구분됨
 - 주요 제품 선정 기준 : MTI 2단위 코드를 바탕으로 2006년도 품목별 對中 수입 비중을 산출 한 후, 30대 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분석함 (30개 품목 비중의 합은 전체 對中 수입액의 약 97%임)
 - 분석 대상
 - 농림수산물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 광산물 :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광물성연료
 - 화학공업제품 : 석유화학, 정밀화학, 요업, 제지원료 및 종이, 기타 화학공업
 - 플라스틱 외 : 플라스틱제품
 - 섬유류 :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
 - 생활용품 : 신변잡화, 가구, 운동 및 취미 오락기구, 완구
 - 철강금속제품 :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기계류 :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수송기계,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 전자전기제품 :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전자부품, 충전기기, 전선

1) 산업 성질별 침투 현황

○ (중국 자본재 상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 급상승) 중국의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전 부문의 한국 시장 침투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자본재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음

- 중국산 원자재의 한국 시장 점유율 일정 : 중국산 원자재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05년 10%, 2006년 10.59%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 중국산 소비재의 한국 시장 점유율 지속 상승 : 중국산 소비재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992년 9.8%에서 2006년에는 35.7%로 1992년 대비 3.6배 증가함
- 중국산 자본재의 한국 시장 점유율 급상승 : 중국산 자본재는 1992년 0.45%에서 2002년 9.22% 그리고 2006년에는 18.5%로 1992년에 비해 41배가 증가함
 - 자본재 수입 비중 급증 : 중국의 對韓 수출 중 원자재 비중은 30% 후반의 일정수준을 유지하였고, 소비재는 2002년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 감소한 반면 자본재의 비중은 1992년 3.8%에서 2006년 38.6%로 10배 증가함

< 對中 수입의 산업 성질별 비중 및 점유율 >



자료 : 무역협회.

2) 산업별 침투 현황

○ (중국산 중화학공업 시장 점유율 확대 및 對韓 수출 경쟁력 증가)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라 중국산 중화학공업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였으며, 對韓 수출 경쟁력 역시 높아지고 있음

- 중화학공업 한국시장 점유율 증대 : 중국산 1차 상품 및 경공업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중화학공업의 점유율은 증가함
 - 중국산 1차 상품 한국시장 점유율은 1992년 7.5%에서 2006년 0.63%로 급감
 - 중국산 경공업 제품 역시 동 1992년 17%에서 2006년 6.34%로 급감
 - 반면 중국산 중화학공업 제품은 동 1992년 1.94%에서 2002년 9.44%로 1992년 대비 약 4배 증가, 2006년에는 17.19%로 1992년 대비 약 8배 증가함
- 중화학공업 對韓 수출 경쟁력 상승 : 1차 상품과 경공업의 對韓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화학공업의 對韓 수출경쟁력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1992년 중국산 1차 상품의 對韓 무역특화지수는 0.98로 거의 완전 수출특화 상태를 나타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거의 0에 가까워짐
 - 경공업 제품 역시 1997년 이후 수입특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특화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반면 중국산 중화학공업 제품은 對韓 수입특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중국의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 및 수출 경쟁력 >

년도별	1차 상품		경공업 제품		중화학공업	
	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점유율(%)	무역특화지수
1992년	7.50	0.98	17.03	0.18	1.94	-0.31
1997년	1.29	0.37	11.56	-0.57	5.03	-0.33
2002년	0.61	0.01	11.10	-0.51	9.44	-0.34
2003년	0.74	0.02	10.07	-0.53	10.60	-0.41
2004년	0.85	0.01	9.25	-0.53	12.72	-0.40
2005년	0.68	-0.01	6.80	-0.64	15.18	-0.36
2006년	0.63	0.02	6.34	-0.62	17.19	-0.30

자료 : 무역협회.

○ (중국의 對韓 수출 구조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 한국의 對中 수입 중 1차 산업 및 경공업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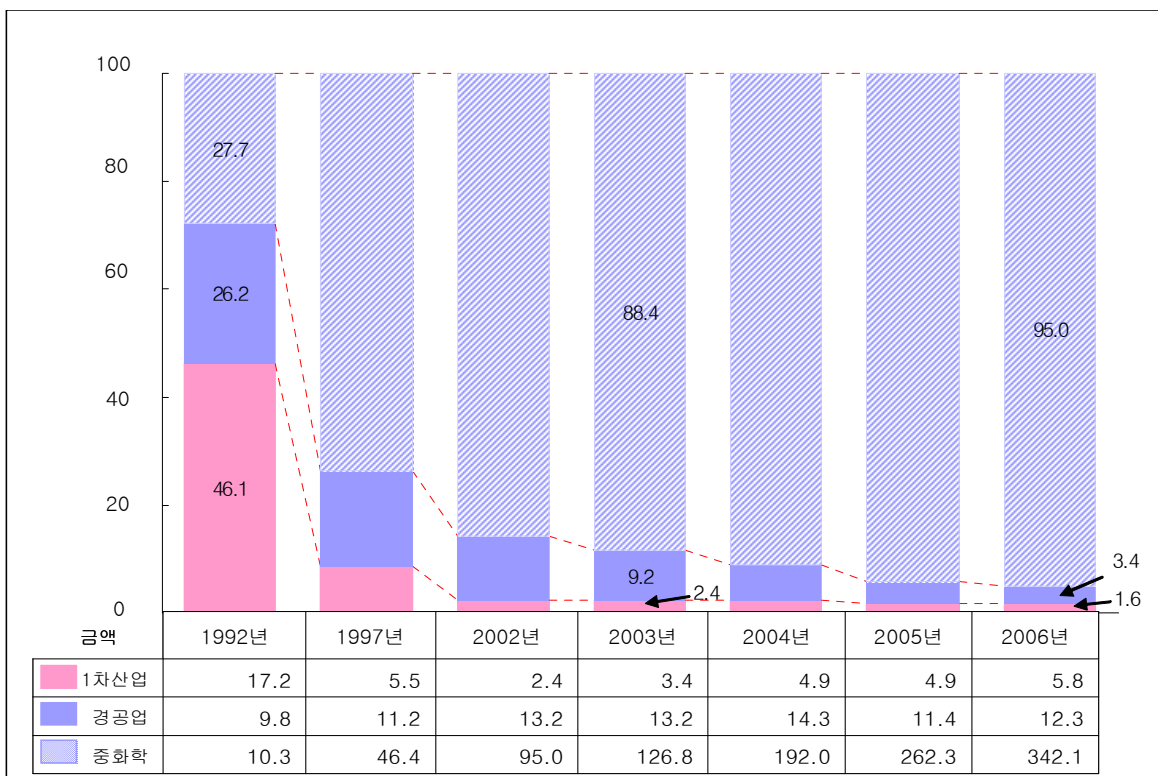
- 對中 수입 중 1차 산업 및 경공업 제품의 수입 비중 급감

- 1차 산업의 중국산 수입 규모는 1992년 17.2억 달러였으나 2006년에는 5.8억 달러로 급감
- 경공업 제품의 對中 수입 규모는 다소 증가했으나, 對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도 26.2%에서 2006년 3.4%로 급감함

- 對中 수입 중 중화학공업 제품 비중 급증 : 對中 중화학공업 제품 수입 규모는 1992년 10.3억 달러에서 2006년 342.1억 달러로 약 30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중 수입 중 중화학 공업 제품 비중 또한 1992년 27.7%에서 95%로 급증함

< 한국의 산업별 중국산 제품 수입 비중 및 금액 >

(단위 : %, 억 달러)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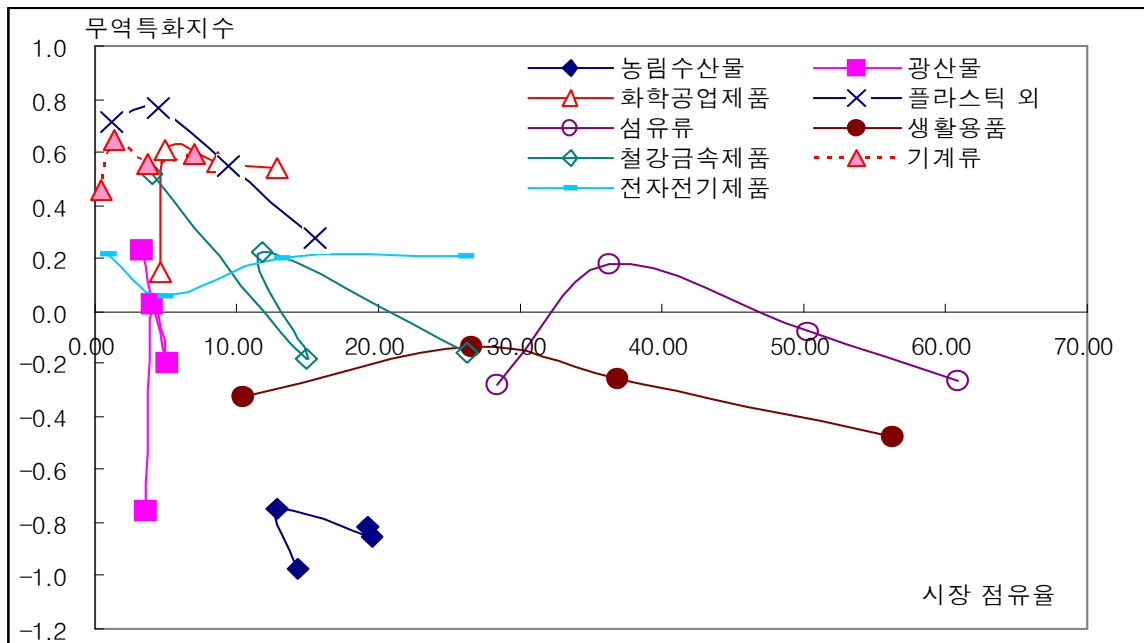
3) 제품별 침투 현황

○ (중국산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 한중 수교 이후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對中 무역특화지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내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음

- 수출 경쟁력 약화 : 한중 수교 이후 5년이 지난 1997년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02년과 2006년에는 급격히 감소함
 - 그러나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0.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수입특화와 수출특화를 반복하고 있음
- 중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 증가 : 전반적으로 원자재인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 >

(단위 : %)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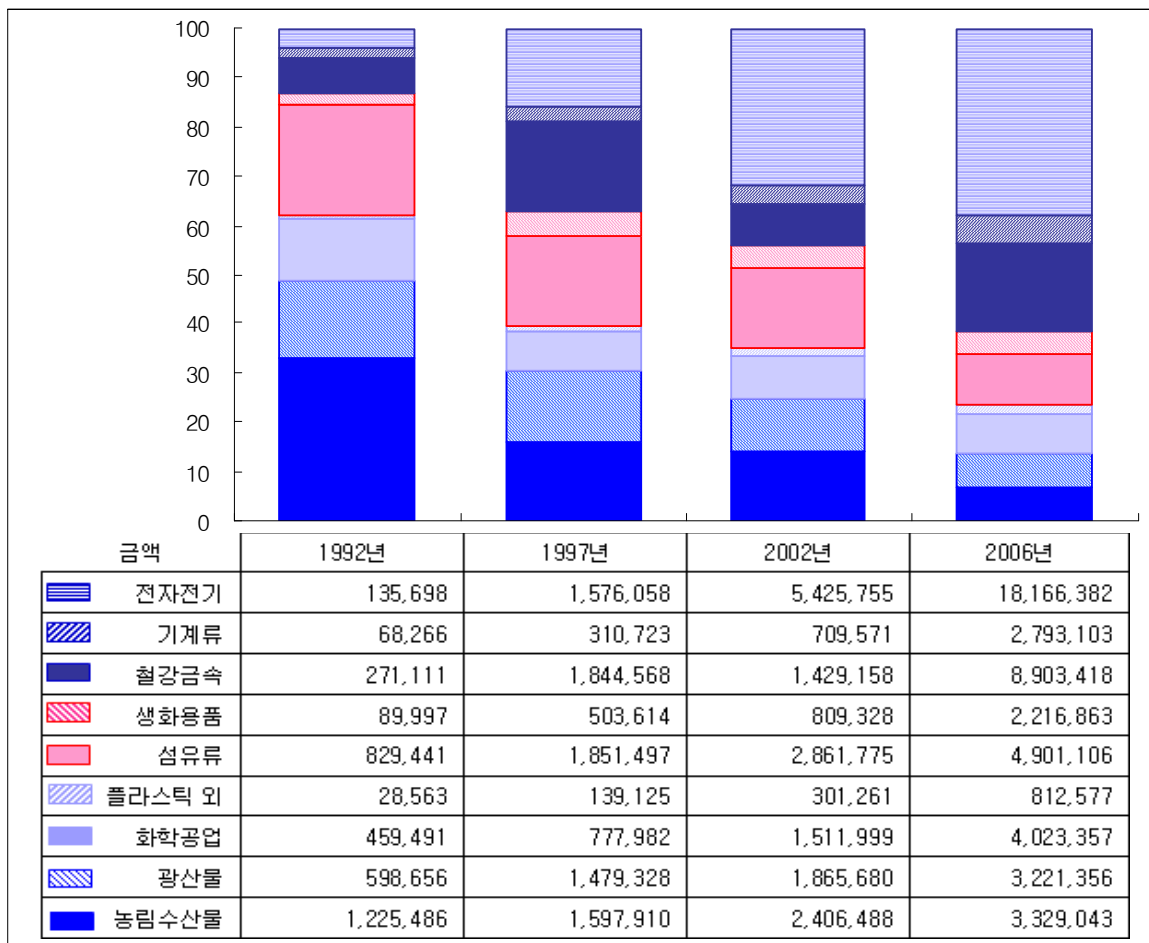
주 : 4개의 점은 한중 수교로부터 5년 간격 시점으로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을 나타냄.

○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對中 수입 증가)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 대비 2006년도 한국의 對中 수입 규모를 보면, 전기전자제품이 약 134배 증가하는 등 산업별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30배 이상 증가함

- 1992년에 비해 2006년도 한국의 對中 수입 증가율은 농림수산물 2.7배, 광산물 5.3배, 화학공업제품 8.8배, 석유류 5.9배를 기록함
- 반면, 생활용품 24.6배,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28.4배, 철강금속제품 32배, 기계류 40.9배, 특히 전자전기제품은 133.9배가 증가함

< 한국의 산업별 중국산 제품 수입 비중 및 금액 >

(단위 : %, 억 달러)



자료 : 무역협회.

- 한국의 對中 수입 중 비중 감소 품목 : 1992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농림수산물과 섬유류가 1992년 각각 32.9%와 22.27%에서 2006년 6.86%와 10.09%로 감소함
- 철강금속과 전기전자의 對中 수입 중 비중 급증 : 철강금속과 전자전기의 對中 수입 비중은 1992년도 각각 7.28%와 3.64%였으나 2006년도 18.34%와 37.41%로 두 제품이 전체 對中 수입의 55.7%를 차지함
- (농림수산물 제품의 한국시장 침투 현황) 한국은 중국과 비교해서 농림수산물에 대해 수입특화 되어 있으며,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산물과 임산물의 점유율은 급증하고 있음
- 농산물 시장 점유율 감소 : 한중 수교 이후 농산물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 2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수산물, 임산물의 시장 점유율 증가 : 수산물의 경우,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에 비해 14년이 지난 2006년에 약 12배 증가한 14.73%의 한국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임산물 시장 점유율 역시 1992년에 비해 약 5배가량 증가하여 37.36%를 기록함

<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 >

구 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
농산물	시장 점유율(%)	21.57	14.51	21.68	19.75
	무역특화지수	-0.99	-0.89	-0.85	-0.76
수산물	시장 점유율(%)	1.64	6.65	11.55	14.73
	무역특화지수	-0.61	-0.65	-0.82	-0.94
임산물	시장 점유율(%)	7.93	25.97	38.26	37.36
	무역특화지수	-0.97	-0.41	-0.87	-0.86

자료 : 무역협회.

- (광산물 제품의 한국시장 침투 현황) 중국산 광물성 연료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수입특화되어 있는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음
 -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수입특화 : 중국에 대해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은 수입 특화 되어 있으며, 광물성 연료는 최근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됨
 - 광산물 수입 비중 변화 : 최근 중국산 광물성 연료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비금속광물 및 금속광물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유연탄, 원유와 같이 광물성 연료의 비중은 2002년까지 증가하다 현재는 감소세에 있음
 - 이와는 반대로 중국산 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의 시장 점유율은 한중 수교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비금속광물 중 기타 비금속광물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2년 5.6%에서 2006년 67.1%로 급증함

< 중국산 광산물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 >

구 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
광물성 연료	시장 점유율(%)	3.60	4.49	4.57	2.49
	무역특화지수	-0.73	0.12	-0.10	0.41
비금속광물	시장 점유율(%)	11.70	28.17	49.64	59.84
	무역특화지수	-1.00	-0.92	-0.96	-0.92
금속광물	시장 점유율(%)	0.74	0.90	0.60	3.45
	무역특화지수	-1.00	-0.59	0.06	-0.52

자료 : 무역협회.

- (화학공업 제품의 한국시장 침투 현황) 한국 수입시장에서 요업을 제외한 석유화학, 정밀화학,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기타화학공업 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
 - 석유화학 : 석유화학의 무역특화지수는 1998년까지 급상승하다 1999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에틸렌, 벤젠 등의 기초유분, 석유화학중간원료,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 대부분의 중국산 시장 점유율이 높음

- 정밀화학 : 중국산 정밀화학 제품은 대체로 對韓 수입특화 되어 있으며,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 역시 증가함
 - 기타 정밀화학원료의 수입 규모가 가장 크며, 염료, 안료의 수입
- 요업 : 중국의 요업제품은 수출특화 되어 있으며, 한국시장의 점유율은 2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에 따른 점유율 변동이 거의 없음
 - 중국 산 요업제품 중 기타 요업제품과 타일의 비중이 제일 크게 나타났으며, 판유리, 안전유리, 유리섬유의 비중 순으로 높음
-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은 한국의 대표적인 對中 수출특화 상품이지만, 최근 對中 수출 경쟁력 역시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의 한국시장 점유율 역시 증가하고 있음
 - 기타종이, 화장지, 인쇄용지, 펄프 수입 규모의 급증에 따라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함
- 기타화학 공업제품 : 기타 화학공업 액정의 소재 등 정밀화학제품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2004년 이후 對中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 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 역시 증가함

< 화학공업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 >

구 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
석유화학	시장 점유율(%)	1.35	2.40	3.40	8.25
	무역특화지수	0.84	0.90	0.92	0.86
정밀화학	시장 점유율(%)	4.04	6.54	10.29	14.51
	무역특화지수	-0.47	-0.05	-0.03	-0.12
요업	시장 점유율(%)	26.52	12.85	26.36	26.22
	무역특화지수	-0.93	-0.67	-0.40	-0.70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시장 점유율(%)	0.20	0.34	2.69	8.25
	무역특화지수	0.93	0.97	0.78	0.15
기타화학 공업제품	시장 점유율(%)	2.65	5.82	7.81	10.59
	무역특화지수	-0.66	-0.11	-0.04	0.07

자료 : 무역협회.

- (플라스틱 및 섬유류의 한국시장 침투 현황) 한국의 경우 플라스틱과 직물은 對中 수출특화인 반면 섬유와 섬유사는 수입특화이고, 4개 산업 모두 중국산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플라스틱 제품 : 1999년 이후 중국의 플라스틱 제품은 對韓 수입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음
 - 플라스틱은 깔개 및 벽 피복, 관, 필름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구성되며, 이중 기타 플라스틱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섬유 제품 : 중국산 섬유제품은 對韓 수출특화되어 있으며, 2002년까지 중국산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다 최근 증가율이 둔화됨
 - 직물 제품 : 중국의 직물제품은 1995년 이후 對韓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었으나,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직물 중 순면 직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터단 섬유, 순견 직물, 폴리에스터 직물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섬유사 : 중국의 섬유사 역시 수출특화 제품이며, 중국산의 한국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對韓 수출 품목인 섬유사 중 면사, 폴리에스터방적사, 폴리에스터사 등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플라스틱 및 섬유류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 >

구 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
플라스틱	시장 점유율(%)	2.10	5.16	8.12	14.14
	무역특화지수	0.25	0.59	0.55	0.32
섬유제품	시장 점유율(%)	24.00	43.75	70.43	73.96
	무역특화지수	-0.57	-0.58	-0.68	-0.73
직물	시장 점유율(%)	38.73	45.14	45.89	56.00
	무역특화지수	-0.36	0.29	0.41	0.37
섬유사	시장 점유율(%)	17.60	20.81	22.86	35.04
	무역특화지수	-0.60	0.25	-0.03	-0.38

자료 : 무역협회.

- (생활용품, 對中 수입특화 지속) 생활용품은 對中 수입특화 속에 중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완구 제품, 운동 및 취미 오락기구 : 중국산 완구 제품과 운동 및 취미 오락 기구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산 완구 제품 중 기타완구와 인형의 비중이 제일 크며, 승용완구 및 조립식 완구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함
 - 운동 및 취미 오락기구의 경우 주로 골프용품, 테니스배드민턴 용품 등 운동 기구가 주를 이루며, 낚시 용구 등도 수입되고 있음
 - 가구 및 신변잡화 : 중국산 가구와 신변잡화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중 수교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각각 71.2%와 64.2%를 기록함
 - 중국산 가구 중 의자 및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침대, 식탁, 책상 등이 그 뒤를 기록함
 - 중국산 신변잡화의 경우, 신발류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합성수지제 가방, 우산, 가죽제 가방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생활용품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 >

구 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
완구	시장 점유율(%)	37.69	52.65	62.89	71.49
	무역특화지수	-0.58	-0.42	-0.50	-0.77
운동 및 취미 오락기구	시장 점유율(%)	2.21	10.95	22.76	31.35
	무역특화지수	-0.14	0.03	-0.56	-0.80
가구	시장 점유율(%)	3.16	10.30	24.27	71.16
	무역특화지수	-0.87	-0.80	-0.72	-0.43
신변잡화	시장 점유율(%)	13.61	42.00	53.47	64.15
	무역특화지수	-0.17	-0.15	-0.19	-0.49

자료 : 무역협회.

- (철강제품,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중국산 비철금속 및 철강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의 경우 2005년 이후 수입특화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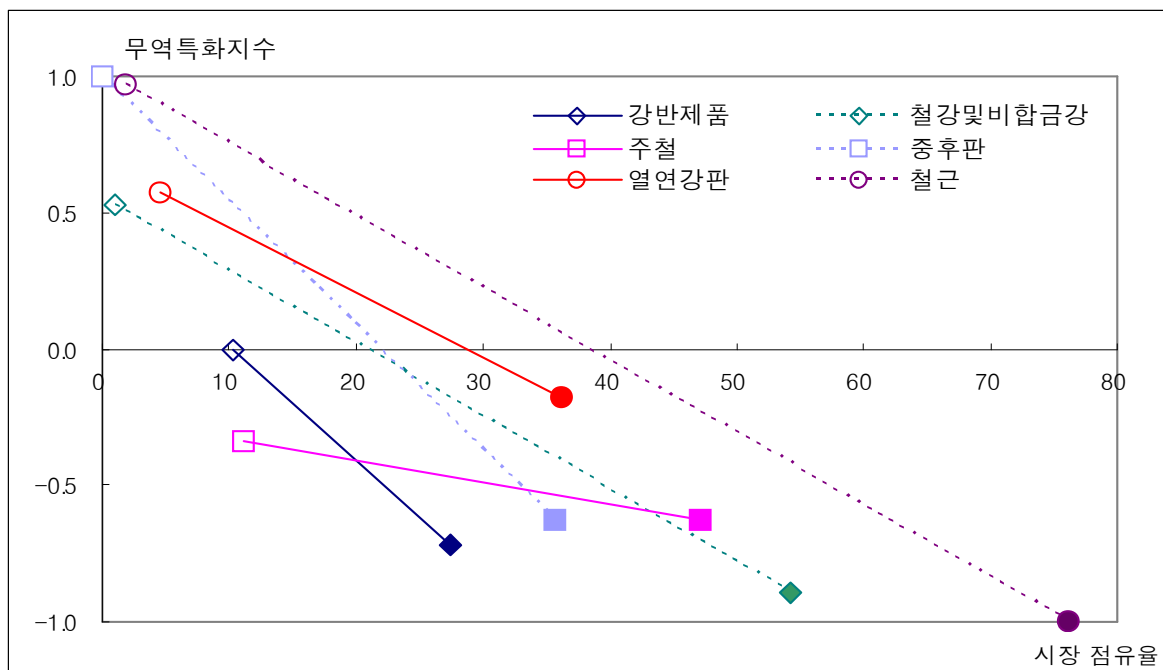
- 비철금속 : 중국산 비철금속의 2006년 한국시장 점유율은 1992년에 비해 8배 가량 증가한 17.53%였으며, 對韓 수출특화 제품이었으나 최근 수입, 수출 특화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양국의 교역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철강제품 : 1998년 이후 對中 수출특화 제품으로 전환된 철강제품은 2004년 이후 빠르게 수입특화로 전환되었으며, 중후판, 철근, 열연강판, 철강 및 비합금강의 경우, 1992년 對中 수출특화제품이었으나 2006년 모두 수입특화로 전환됨

< 철강금속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 >

구 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
비철금속	시장 점유율(%)	2.23	6.84	14.42	17.53
	무역특화지수	-0.02	-0.07	-0.12	0.07
철강제품	시장 점유율(%)	5.17	20.43	9.62	31.65
	무역특화지수	0.58	-0.22	0.41	-0.28

자료 : 무역협회.

< 주요 철강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



자료 : 무역협회.

주 : 음영 없는 점은 1992년, 음영 있는 점은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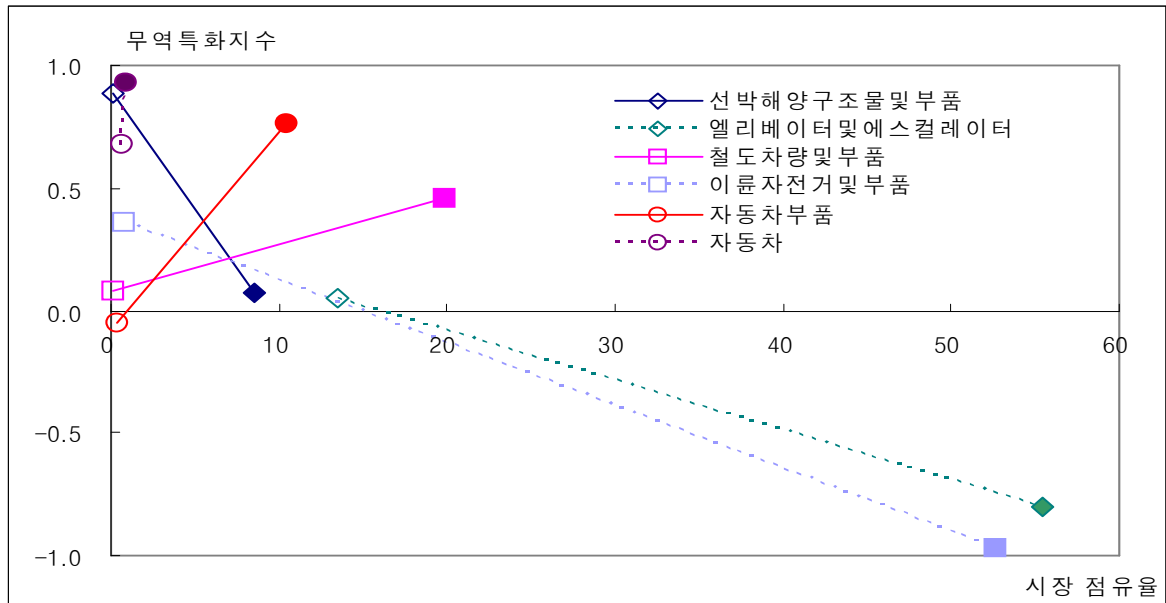
- (기계요소공구 및 구형과 기초산업기계의 한국 시장 침투 가속) 한국산 기계류는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 되어 있으나, 기계요소공구 및 구형과 기초산업기계의 중국산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기계요소공구 및 구형 : 한국의 기계요소공구 및 구형은 對中 수출특화 되어 있지만, 최근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기계요소공구 및 구형의 수입 규모 중 기타 기계요소 및 밸브의 비중이 가장 크며, 볼트 및 너트, 베어링 등의 비중 역시 큼
 - 수송기계 : 한국의 수송기계 역시 對中 수출특화 제품이지만,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와 이륜자전거 및 부품은 1992년 수출특화 제품이었지만, 2006년 현재 수입특화 제품으로 전환되었음
 - 특히 중국산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와 이륜자전거 및 부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50% 이상을 차지함

< 기계류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 >

구 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
기계요소공구 및 구형	시장 점유율(%)	0.92	2.54	7.66	15.03
	무역특화지수	-0.18	0.21	0.10	0.00
수송기계	시장 점유율(%)	0.20	1.35	3.09	6.39
	무역특화지수	0.58	0.49	0.40	0.66
산업기계	시장 점유율(%)	0.36	0.86	2.00	5.73
	무역특화지수	0.69	0.82	0.86	0.67
기초 산업기계	시장 점유율(%)	0.39	1.56	5.61	12.00
	무역특화지수	-0.17	0.66	0.30	0.60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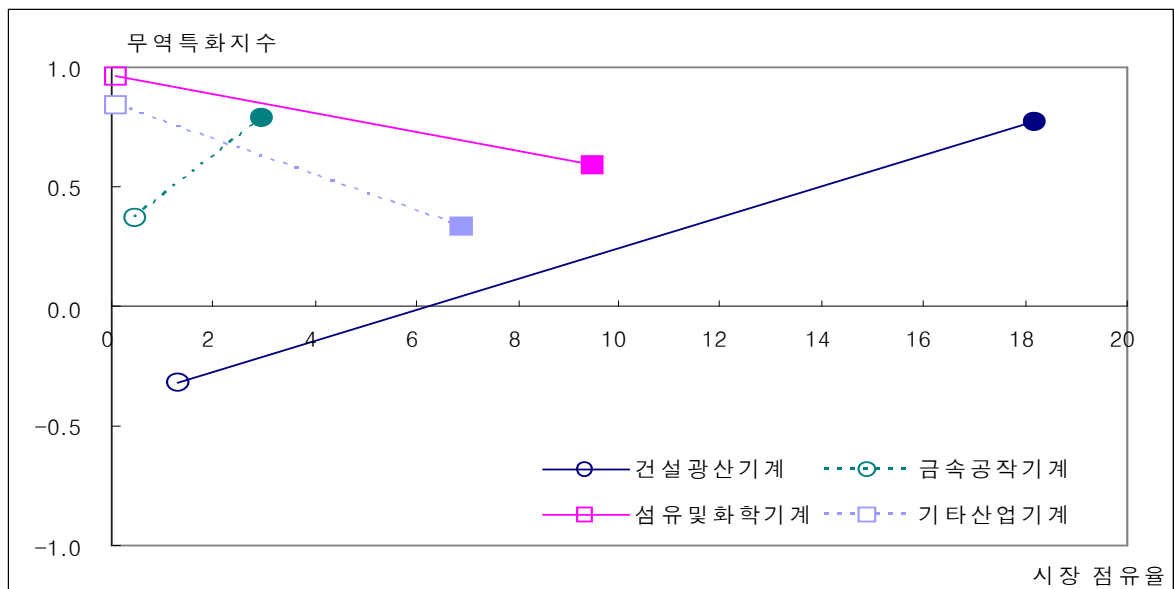
< 수송기계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



자료 : 무역협회.

주 : 음영 없는 점은 1992년, 음영 있는 점은 2006년.

< 주요 산업기계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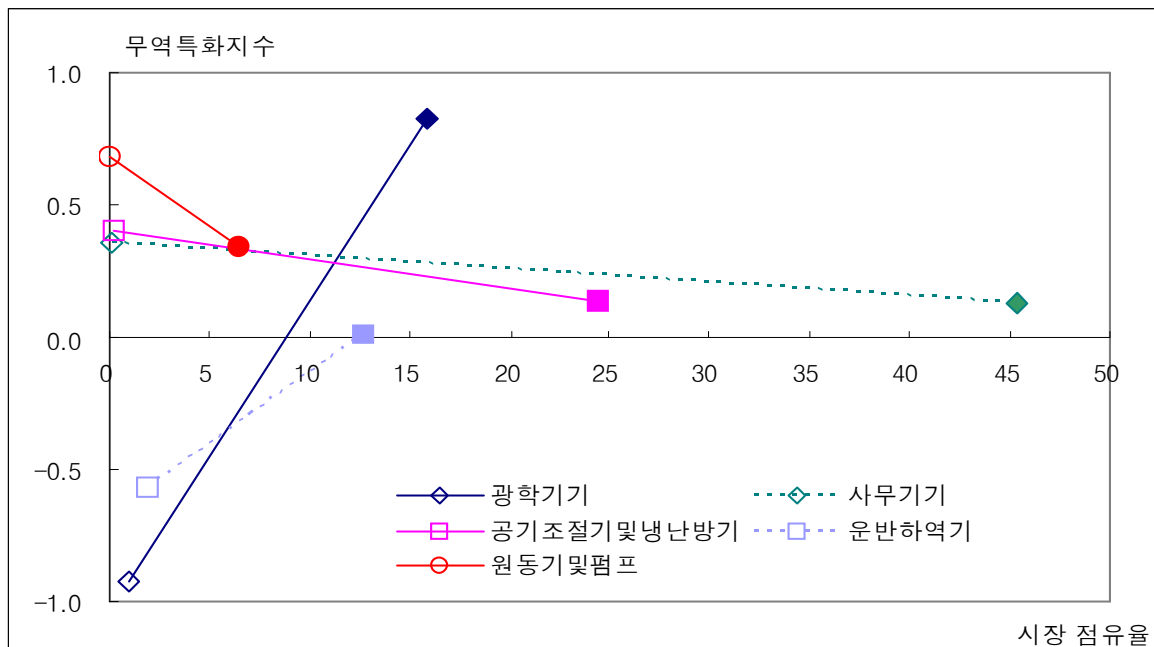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주 : 음영 없는 점은 1992년, 음영 있는 점은 2006년.

- 산업기계 : 중국산 산업기계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섬유 및 화학기계와 기타 산업기계의 경우 여전히 중국에 대해 수출 특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음
- 기초 산업기계 : 중국산 기초 산업기계 중 사무기기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광학기기 및 운반하역기계의 무역특화지수는 상승하는데 반해 나머지 기초 산업기계의 무역특화지수는 하락함
 - 한국산 광학기기의 경우 수입특화 제품이었지만, 2003년 對中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출특화 제품으로 전환되었으며, 운반하역기계는 1993년 이후 수출특화 제품으로 전환됨
 - 한국의 원동기 및 펌프, 사무기기,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 제품이지만, 對中 수출경쟁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산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국산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와 이륜자전거 및 부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50% 이상을 유지함

< 기초 산업기계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



자료 : 무역협회.

주 : 음영 없는 점은 1992년, 음영 있는 점은 2006년.

○ (전자전기제품의 한국시장 침투 현황) 한국의 중전기기는 중국에 대해 수입특화 되어 있고 전선,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은 수출특화 되어 있으나, 중국산 전자전기제품의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

- 중전기기 : 변환 및 안정기와 전동기는 중국의 對韓 수입특화 제품이며, 변압기는 2005년 이후 수출 특화 제품으로 전환됨
 - 특히 1992년 중국산 변환 및 안정기, 변압기, 전동기의 한국 수입시장 비중은 10% 미만이었지만, 2006년 현재 각각 57.9%, 60.9%, 42.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전자전기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 >

구 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
중전기기	시장 점유율(%)	1.80	9.79	27.29	32.37
	무역특화지수	-0.40	-0.15	-0.27	-0.15
전선	시장 점유율(%)	0.36	20.76	29.90	41.03
	무역특화지수	0.99	0.20	0.09	0.06
전자부품	시장 점유율(%)	0.32	2.57	8.08	16.34
	무역특화지수	0.50	0.16	0.15	0.39
가정용 전자제품	시장 점유율(%)	4.44	22.41	28.18	39.79
	무역특화지수	-0.08	0.03	-0.01	0.09
산업용 전자제품	시장 점유율(%)	0.57	3.58	14.35	35.72
	무역특화지수	0.08	0.06	0.40	0.13

자료 : 무역협회.

< 중전기기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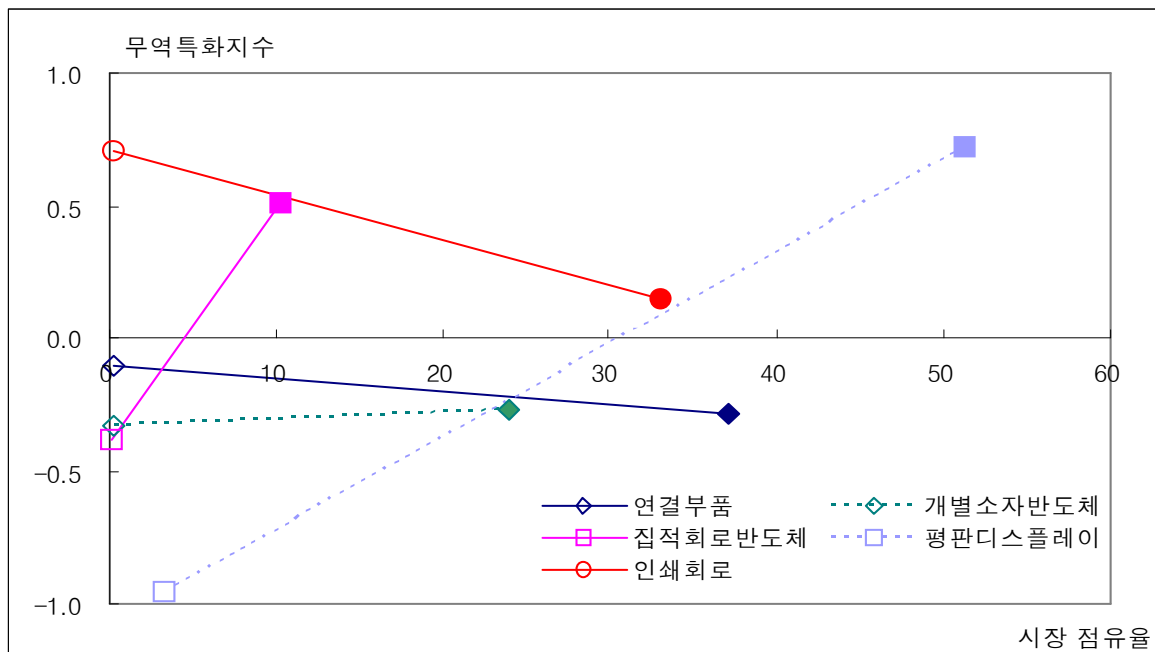
구 분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
변환 및 안정기	시장 점유율(%)	4.02	14.70	37.27	57.85
	무역특화지수	-0.28	-0.12	-0.47	-0.37
변압기	시장 점유율(%)	8.24	33.32	65.89	60.91
	무역특화지수	-0.53	-0.15	-0.17	0.03
전동기	시장 점유율(%)	5.30	25.40	43.67	42.09
	무역특화지수	-0.82	-0.44	-0.47	-0.49

자료 : 무역협회.

- 전선 : 전선 제품은 한국의 對中 수출특화 제품이나, 對中 수교 이후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산 전선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급상승
 - 1992년 한국산 전선의 對中 무역특화지수는 0.99로 거의 수출만 했던 것과는 달리 1997년에는 0.2, 2002년에는 0.09 그리고 2006년에는 0.06으로 한국의 對中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중국산 전선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2년 0.36%에서 2002년 29.9%로 성장했으며, 2006년에는 41.03%로 급상승함

- 전자부품 : 한국산 연결부품과 개별소자반도체는 對中 수입특화 제품이며, 중국산 평판디스플레이의 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급상승
 - 집적회로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는 1992년 수입특화 상품이었지만 2006년 현재 한국의 수출특화 상품임
 - 인쇄회로는 수출특화 제품이지만, 對中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중국산 전자부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평판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함

< 기초 산업기계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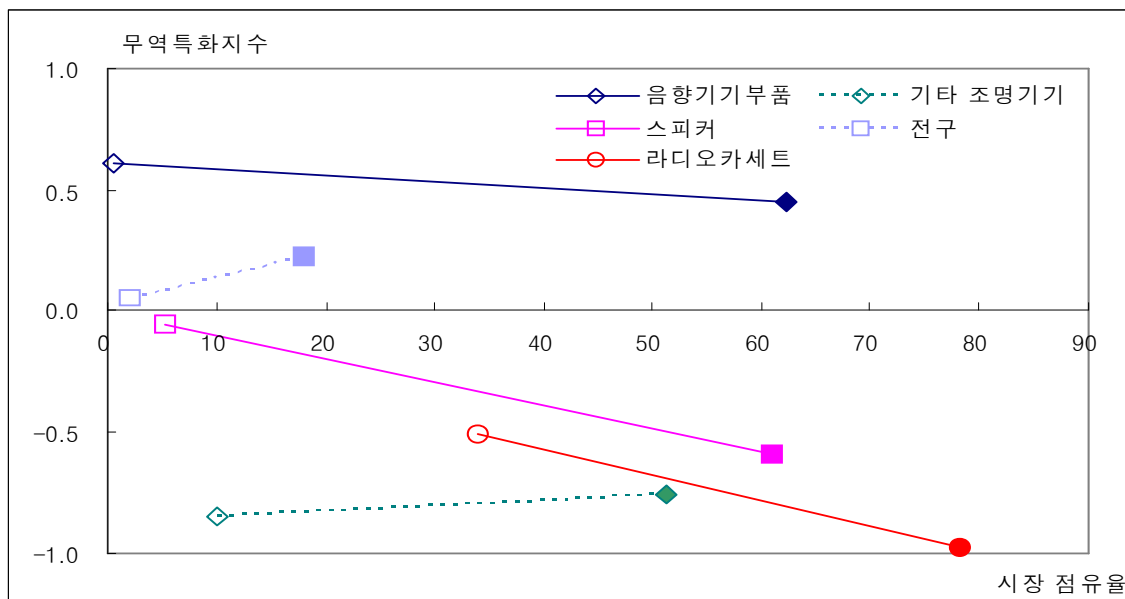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주 : 음영 없는 점은 1992년, 음영 있는 점은 2006년.

- 가정용 전자제품 : 중국산 가정용 전자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2006년 현재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스피커, 라디오카세트, 기타 조명기기는 중국에 대해 수입특화 되어 있음
 - 한국의 음향기기부품과 전구는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되어 있지만, 스피커, 전구, 라디오 카세트는 수입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스피커와 라디오카세트에 대한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중국산 가정용 전자제품이 한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음향기기부품, 스피커, 기타 조명기기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라디오카세트는 7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가정용 전자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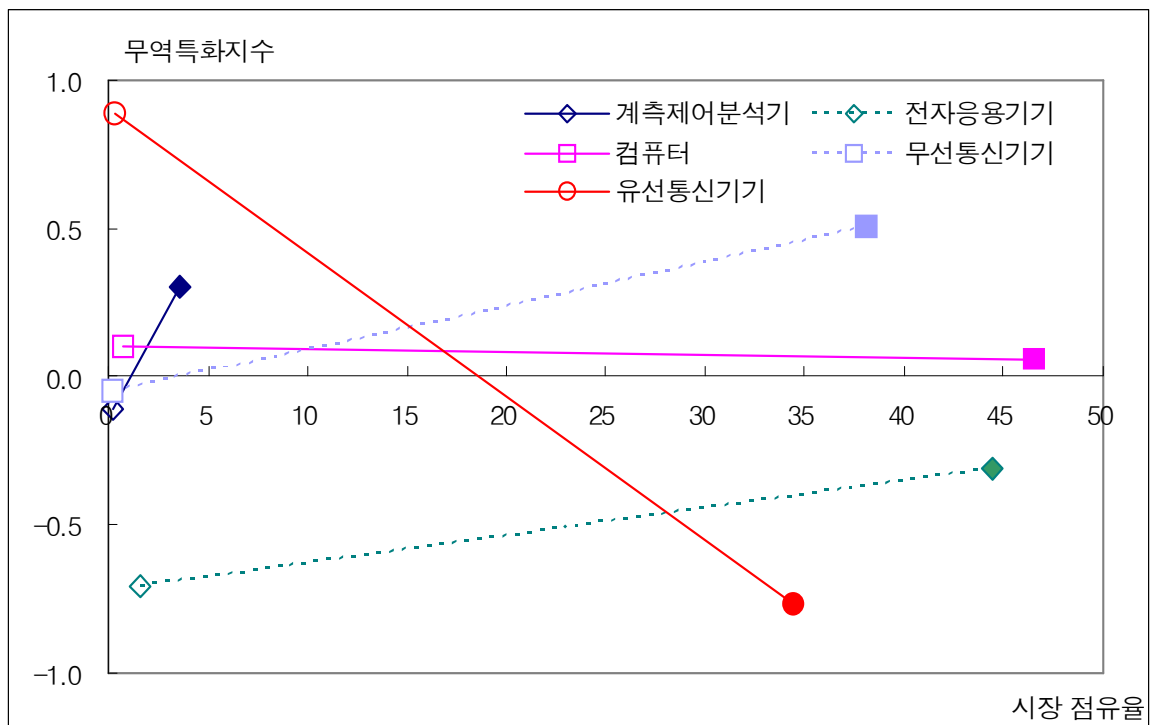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주 : 음영 없는 점은 1992년, 음영 있는 점은 2006년.

- 산업용 전자제품 : 컴퓨터는 對中 수입특화, 계측제어분석기, 무선통신기기는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유선통신기기는 수출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됨
 - 계측기, 계측기부품, 자동제어기, 자동제어기부품, 분석시험기로 구성되어 있는 계측제어분석기는 전반적으로 한국 제품이 對中 수출특화되어 있는데 반해 중국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5% 이하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전자 응용기기는 對中 수입특화되어 있으나, 중국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992년의 1.63%에서 2006년에는 44.44%로 크게 증가함
- 무선통신기기는 무선통신기기 부품과 무선전화기, TV 카메라 및 수상기 등으로 구성되며, 1992년에 對韓 수입특화에서 2006년에는 수출특화로 전환됨
- 유선 통신기기는 1999년까지 對中 수출특화였으나 2000년 이후 수입특화로 전환되면서 중국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 또한 급증하고 있음
- 컴퓨터 산업 중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부품, 프린터 등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1%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모니터, 소프트웨어, 전산기록매체, 보조기억장치 등은 對中 수출특화 되어 있지만 컴퓨터 주변기기, 프린터 등은 수입특화되어 있음

< 산업용 전자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



자료 : 무역협회.

주 : 음영 없는 점은 1992년, 음영 있는 점은 2006년

3. 정책 과제

○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주력 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정책 강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강화, FTA 등 대외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 전기 마련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력 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정책 강화

·IT, BT, NT 등 신기술 융합 제품 개발 촉진 : 신기술 융합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가칭 '융합기술 사업화 전략단'의 구성, 신기술 융합 제품의 정부 조달 강화, 신기술 융합 제품에 대한 R&D 세제의 한시적 우대 조치 도입, 신기술 융합 제품의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

·미래형 첨단 제품 개발 지원 : 초고선 여객용 선박,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형 첨단 제품 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고도화로 新시장을 개척

·전통 제조업의 첨단화 지원 : 지역 거점형 '제조혁신연구개발코어'(대만 타이난 과학기술공업단지에 '산학혁신연구개발시범구역'을 건설, 전통 제조업의 혁신연구개발 전환을 지원) 조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첨단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완제품에서 부품·소재까지 전방위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쟁력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소재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부처 통합에 의한 종합 육성 체제 수립, 선행-응용-사업화 연계 패키지형 기술개발 프로그램 개발이나 소재정보은행(Material bank)과 기술지원센터(Solution center) 활성화 등 차별화된 소재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가칭 '소재(생산기반기술)전문펀드' 등 자금 형성을 통한 사업화 촉진 등의 전략 마련이 필요함

·나아가 對 글로벌 기업 부품·소재 조달기업에 대한 수출 관세 우대, 對 글로벌 기업 부품·소재 조달 마케팅 종합 지원 프로그램 구축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부품·소재 조달 네트워크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 대외 경제 협력 강화 촉진을 통한 對中 수출현상 개선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동유럽의 지역 또는 국가들과의 FTA 등을 통해 대외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투자, 교역 등에 있어서의 對中 수출현상을 개선시키는 촉매제로 활용
 - 이를 통해 수출입 시장 다변화 전기를 마련하고, 중국 경제의 급변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투자 지역 다변화,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 한·중간 분업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對中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투자 지역 다변화 : 아시아, 동유럽 등지에의 투자 지역 다변화 통한 對中 의존도 약화, 투자 리스크 분산 등을 피함과 동시에 시장 다변화를 달성
 -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고,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對中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한 지역에 대한 투자 집중은 해당 지역 리스크 발생 시 기업 리스크 역시 동시에 발생
 - 따라서 중국 이외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아시아, 동유럽 등 급성장 지역이나,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시장 다변화를 이루어 내야 함

-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 : R&D, 디자인, 기술경영 등 기존 산업의 소프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를 실현
 - **R&D 강화** :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R&D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로 R&D 인력 확보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 능력을 강화해야 함
 - **디자인력 강화** : 전사 디자인 부문의 위상 정립, 디자인 결정 프로세스의 강화, 전사 디자인 담당 조직 통합을 통한 시너지 유도, 新아이디어와 우수 인재 확보 노력 등을 통해 디자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기술경영 능력 배양** : 기술경영 대학원의 활성화 및 기업의 기술경영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내부 지적자산의 비즈니스화 촉진, 중소·중견 기업들

이나 한계기업의 경우 일본의 은퇴 또는 현장의 숙련 고급 기술인력 유치·활용 지원 강화를 통한 기술경영 능력 배양 등이 중요

- 국내 소비 수요에 맞춘 상품 개발 및 국내 마케팅 전략 강화를 통한 내수 경쟁력 확보

- 소비자 구매의 기준은 크게 가격과 품질로 나눌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에 대해 내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인 정서에 부합하는 품질 좋은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함
- 국내 소비자들의 행동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 시장에 따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홍보 및 판촉 행사 등을 통해 국산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임 

임상수 연구위원(☎ 3669 - 4125, happylims@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2/4분기 교역조건 악화

-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단가(전년동기대비 3.7%, 전기대비 5.2%)가 수출단가(전년동기대비 2.1%, 전기대비 1.3%)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데 기인하여 2/4분기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지수(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는 전기대비 3.6% 하락하였음
- 수입단가는 소비재(전기대비 -2.4%) 품목이 내렸으나 국제원유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재(7.1%)가 오른 데다가 전기·전자기기 제품을 중심으로 자본재(2.4%)가 오른 데에 기인하여 전기대비 5.2% 상승하였음
- 수출단가는 중화학공업제품이 변동 없는 가운데 석유제품과 경공업제품이 올라 전기대비 1.3% 상승하였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5.1(0.8)	4.8(1.2)	4.0(0.9)	4.0(0.9)	4.9(1.7)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6.1	2.9	4.5	7.1	5.2	4.7	-
		설비투자추계	6.3	7.4	6.7	11.8	5.1	11.3	12.1	9.1	-
		건설수주	7.3	9.0	-14.7	37.1	27.1	26.3	26.3	28.8	-
	공급	수출	12.0	14.4	16.9	16.3	13.8	14.6	14.4	15.3	20.0
		산업생산	6.3	10.1	11.5	11.3	5.2	3.3	7.0	7.6	-
		취업지수(만명)	2,286	2,315	2,341	2,331	2,330	2,284	2,370	2,382	2,375
실업률(%)		3.7	3.5	3.4	3.3	3.2	3.6	3.2	3.2	3.2	
대외 거래	수입	16.4	18.4	20.4	21.1	13.0	13.3	14.3	9.3	14.9	
	경상수지(억\$)	166	61	7	4	61	-17	2	15	-	
물가	무역수지(억\$)	232	161	48	25	75	25	56	38	16	
	소비자물가	2.8	2.2	2.2	2.5	2.1	2.0	2.4	2.5	2.5	
	생산자물가	2.1	2.3	2.5	3.1	2.0	1.8	2.5	2.7	2.4	
	수출단가	1.3	-0.3	-1.1	1.0	0.2	0.4	2.1	0.4	-	
	수입단가	9.3	7.7	7.7	10.1	6.5	1.9	3.7	5.1	-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가 급등 속, 원화 환율 하락

○ (해외 금융 시장)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제 금리 하락 지속

- 금리: 신용경색 지속을 완화하기 위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인다, 모기지 업체인 Countrywide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등세로 전환하였으나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국채 10년물 : 4.69%→4.65%)
- 환율: 달러화는 미 모기지 산업 인력의 대량해고에 따른 고용시장 및 경제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유로화에 대하여 약세를 보였으나,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동결로 내외금리차가 지속되어 캐리 트레이드가 재개 되면서 엔화에 대하여 강세 시현 (\$/€ : 1.3475→1.3565, ¥/\$: 114.4→116.2)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급등 속, 원화 환율 하락

- 주가: 미 연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우려감이 다소 진정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1,638.1→1,638.1)
- 금리: 국내 신용 경색 우려, 해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보합세를 기록하였으나, 주 후반에 들어 해외 채권 시장에서 시작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23%→5.25%)
- 환율: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위한 달러화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950.4→950.4원)

○ (전망) 미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의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1/4	2/4	3/4	4/4	1/4	2/4	8.17	8.24 ¹⁾
국내	거래소 주가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743.6	1,638.1	1,638.1
	국고채3년(%)	4.93	4.92	4.57	4.92	4.76	5.26	5.23	5.25
	원/달러	971.6	948.9	946.2	929.8	940.9	923.8	950.4	950.4
해외	DOW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409	13,079	13,236
	Nikkei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8,138	15,274	16,316
	미국채10년(%)	4.85	5.14	4.63	4.70	4.57	5.02	4.69	4.65
	일본채10년(%)	1.78	1.93	1.68	1.69	1.60	1.88	1.59	1.58
	달러/유로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542	1.3475	1.3565
	엔/달러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23.18	114.38	116.18
	두바이(\$/배럴)	59.16	67.17	57.33	56.71	63.12	66.42	66.96	66.38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8.23) 기준